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2월 20일(금)
---(음력 1월 4일)---
Пятница
20 февраля 2026 г.
№ 7 (1217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3일은 조국 수호자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2월 23일은 우리나라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로 기념합니다.

이날은 국방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러시아를 위해 손에 무기를 들고 복무하는 장병들, 또는 복무했던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추드스코에 호수에서 빙상 전투로 외적을 물리쳤고,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을 격퇴했으며, 베를린 국회의사당에 승리의 깃발을 게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이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조국을 수호하며 우리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들께서 이루신 과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승리를 향한 여정에 있는 장병들을 지지합니다.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장병들과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와 후방전선의 요원들, 여러 해 동안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 러시아의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새로운 성취와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삶의 질 평가에서 처음 5위로 등극

사할린주가 국내 삶의 질에 따른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기획청 감독위원회 회의 후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발표했다.

사할린주는 이 부문에서 7위였던 2024년 대비 순위가 상승하여 처음 5위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과

사업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높이 평가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러한 결과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입증하며, 앞으로 사회와 경제 분야의 발전 및 각 제반시설 구축을 지속해갈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국 애국-음악 행사, 조국수호자의 날에 앞서 진행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는다> 음악 공연이 2월 19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크리스탈' 빙상장에서 18시에 시작됐다.

애국음악공연은 청년세대에게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게 하고, 민족 문화와 언어, 선조들의 업적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며, 조국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열렸다.

2026년은 러시아 민족통일의 해로 선포된 가운데 '크리스탈' 공연장에서 조국과 러시아 국민의 강인함, 군의 업적을 기리는 창작곡들과 불멸의 히트곡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공연에 특수군사작전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참전장병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유명 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쳤는데 출연진으로 올레그 가스마노브와 그룹 밴드 '에스카드론', 루슬란 오스타쉬코와 그룹 '나쉬', ST와 그룹 '즈웨로보이', 아가타 크리스티나 그룹, 세르게이 갈라닌과 '세르가' 그룹 등 여러 그룹과 게오르기 조보브, 웨니아민 김을 비롯해 사할린 현지에서 잘 알려진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했다.

음악공연은 러시아 유명 TV방송 진행자인 블라드 말렌코와 율리아 바라보노스카야가 진행하고, 2월 22일 '빠르비' 채널에서 방송으로 볼 수 있다.

단신

박수식, 사할린한국교육원 제11대 원장에 임명

경남 거창 출신의 박수식(1976년생) 선생이 사할린한국교육원 제11대 원장으로 임명돼 2026년 3월 1일에 부임한다.



박수식 신임 원장은 영어교육학과 학사와 상담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 교직에 입문해 김해 가야고, 창원 용호고, 거창 공업고, 마천중, 거창 승강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거창 승강고등학교 교감을 지내며 교육 행정의 경험을 쌓았다.

사할린, 러시아 요리축제 진행

전국 러시아 요리축제에 유즈노사할린스크가 합류한 가운데 지역 카페와 레스토랑, 요식업체들이 러시아 정통 조리법에 따라 준비한 요리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축제에 참가하는 요식업체들의 요리는 특별브랜드의 가격표로 알아볼 수 있어 고객들이 전통적인 요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사가 마슬레니차 주간에 열려 요식업체들은 다양하게 속을 채운 블리니, 전통적으로 곁들이는 음식과 반찬, 도너츠, 러시아식 샐러드를 선보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동계 실내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러시아 동계 실내 육상선수권대회가 처음 극동연방관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신축 실내 육상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15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이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최신식 실내 육상경기장은 연방 수준의 경기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 개막식은 오는 2월 28일 16시 30분에 열리고, 참가자와 종목 및 일정은 2월 28일, 3월 1일 2일 오전 10시에 결정되며, 결승전은 3월 3일 오후 12시에 시작되고, 입장은 무료다.

러시아 병역 대상자, 중대한 생활 변화 시 병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러시아 병역 대상자는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시 병무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생활의 큰 변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2주 내에 병무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할 주요 사항은 혼인 또는 이혼, 새로운 진학, 직장 변동, 학업 변동, 직위 승진 및 강등, 새로운 주소지에 공식 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 6개월 이상 러시아 연방 밖으로 출국 시 신고를 요한다.

이러한 병역신고를 간과할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은 5천 루블리에 달한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년 임기를 마치는 정승훈 교육원장: "정 많은 사할린 동포들, 헤어지려니 만감교차"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2월 23일 귀국한다. 귀국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가 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원장님, 먼저 3년간의 사할린 임기를 마치시고 귀임하시는 소감을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이 참 많은, 그래서 마치 제 어머니와 아버지 같고 형님, 누나와 같은 여러 동포분들과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떠날 때는 뿌듯함보다는 항상 아쉬움이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입니다. 귀임하는 소감은 새로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 사할린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의 기억하시는 부분은?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무엇이었습니다?

- 처음 도착했을 때 눈으로 경험한 가장 강렬했던 것은, 천지간에 가득한 눈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으로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코르사코브 망향탑을 참배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왔다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의 절절한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저에게도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주요 호텔의 주인들이 우리 동포라는 사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요. 원장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가장 최근(2025년 11월)에 실시했던 국립남도국악원 초청 동포 대상 국악 강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비록 시간이 넉넉한 일정은 아니었지만, 참석하신 동포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2023.12.8.)를 치른 것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30주년 기념 행사였던 만큼 의미도 컸고, 교육원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 밖에 사할린국립대와 함께 추진했던 한국어 교사 세미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한국어 말하기 대회, K-Pop 경연대회 등이 생각납니다.

- 현재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직접 운영하는 수업과정은 얼마나 되며,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사할린에서 한국어의 인기는 여전한가요? 러시아인 수강생과 우리 동포 수강생의 비율, 그리고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궁금합니다.

- 현재 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강좌 수는 주말 '에트노스' 반을 포함하여 14개 강좌입니다. 한국어 입문(4개), 초급(6개), 중급(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176명이지만, 수강생 숫자는 211명입니다. 강의를 2개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수강생 숫자는 가을 학기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동포가 130명, 러시아 현지인이 42명, 중앙아시아인이 4명입니다. 한국어 강좌는 14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수강생들의 연령은 대부분 성인입니다. 사할린에서도 한국어의 인기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세계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대학에서 외국어 강의를 듣는 학생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어 수강생 숫자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한국어

강사 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Duo Lingo) 전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 숫자가 1,800만 명인데 2030년에는 5,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 교육원에는 현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 한국어 강사님은 5분이고 한국 문화 강사님 두 분이 3개 강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 만족도는 90% 이상, 한국문화 강좌의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 재임 기간 중 여러 한글학교를 개설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글학교와 새로 개설하신 한글학교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한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점과 그 해결 과정, 그리고 특히 애착이 가는 학교가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 2025년도에 은하수 한글학교, 한마루 한글학교, 민들레 한글학교가 새롭게 개설되었고, 흙스크의 만천 한글학교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나와즈니 축제>, 알과 꼬리쉬카를 얹은 달콤한 빵으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2026년 2월 16일(월)부터 3월 1일(일)까지 진행되는 <나와즈니 축제(나와가 축제)>로 미식마라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지역의 요식업체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미식축제에 26개의 요식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 동안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꼬리쉬카와 나와가를 주재료로 구성한 3가지의 요리 세트를 맛볼 수 있다.

사할린 관광부 나탈리아 파홀코와 차관은 "우리는 벌써 6번째 사할린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매우 좋아하는 전통적인 미식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멋진 축제는 2월 23일을 앞두고 겨울휴식기간에 시작된다.

요리사들의 창작 요리세트를 맛보며, 음식이 가장 마음에 든 요식업체를 선정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올해 축제에 새로이 네웰스크의 '나 라이트'카페와 코르사코브 인근 '해변의 꿈'레스토랑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축제 메뉴 세트의 가격은 1450루블이고, 사할린의 요리사들은 잘 아는 지역산 주재료들을 사용하여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해 독특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준비했다.

'레토'레스토랑의 요리사 겸 조리사는 팀을 이루어 방문객들을 위해 구운 생선을 얹은 빵조각, 튀김옷을 입힌 채소와 결들인 나와가 살코기 그리고 '위장한'이라는 빵조각에 알을 얹은 달콤한 후식을 준비했다. 사실 부르스니카 시럽에 적신 이 부드러운 과자는 크림치즈와 사할린의 열매로 만든 버블(젤리알)이 곁들여져 있다.

<나와즈니 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은 마음에 든 요리세트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투표 결과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요리 제공>, <세트 요리의 창의적인 이름> 부문에서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ладкий бутерброд с икрой и риет из корюшки: чем «НаВажный фест» удивит сахалинцев

В понедельник, 16 февраля, в точка пит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Невель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НаВажный фест» будет идти по 1 марта 2026 года. В 2026 году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26 заведений.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сахалинцы, курильчане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попробуют сеты из трех блюд, главными ингредиентами в которых станут корюшка и навага.

«Мы проводим наш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уже в шестой раз, его очень полюбили островитяне и туристы.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ртует в период зимней рыбалки, перед 23 февраля. Мы приглашаем гостей попробовать авторские сеты от шеф-поваров и выбрать своего фаворита среди заве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к на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новые участники — кафе „На лайте“ в Невельске и ресторан „Мечты у моря“ вблизи Корсакова», — рассказа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уризма Наталия Пахолкова.

Стоимость сета составляет 1450 рублей. Островные шефы подготовили необычные рецепты из знакомых локальных ингредиентов, причем проявили изрядную фантазию.

Например, шеф-повар ресторана «Летто» Даниил Орел вместе с командой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риет из печеной рыбы в качестве закуски, наважье филе с овощами в кляре и десерт, «замаскированный» под бутерброд с икрой.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нежный бисквит, пропитанный брусничным сиропом, с крем-сыром и мармеладными икринками из местных ягод.

Во время «НаВажного феста» можн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понравившийся сет. В итоге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ерут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ий вкус», «Лучшая подача», «Лучший сервис», «Креативное название сета».

사할린주의 출산지원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사할린주가 셋째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지역 출산지원금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에서는 25만 루블리를 지원하는데 이는 8만 루블리- 20만 루블리까지 지급하는 국내 다른 행정자치체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출산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니즈니노브고로드주로 이곳 출생아 부모에게는 70만 루블리의 증서와 10개월간 매월 3만 루블리씩 지급하는 방식 또는 3년간 매월 3만 루블리를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야말-네네츠크 자치구에서도 출산지원금이 높아 50만 루블리에 달하고, 네네츠크 자치구는 약 40만 루블리에 달한다. 하바롭스크 변경은 32만 루블리, 사하(야쿠티아)공화국과 코미 공화국은 30만 루블리이다. 연해주에서는 23만 8,800루블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2만4,500루블리, 노브고로드주는 20만 루블리, 하카시아 공화국은 21만6천 루블리(소규모 마을 주민들에게)이다.

출산지원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북부 오세티야 -알라니아 공화국-로 총 5만 루블리이다.

한편 러시아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 바로 아스트라한주, 세와스토폴, 크림공화국, 페름 변경, 우드무르치아공화국, 타타르스탄공화국, 바쉬코르스탄, 쿠르간주, 티와공화국이 이에 속한다. 헬라빈스크주에서는 가정의 평균소득이 최저생활비의 2배가 넘지 않을 경우에만 약 14만 루블리가 지급된다

전국 통계상으로 사할린 지역의 출산지원금 25만 루블리는 경쟁력 있고, 체감되는 수준의 지원인 셈이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огнала большинство регионов по размеру мат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 где предусмотрен один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размеров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ри рождении третьего ребенк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250 тысяч рублей — это больше, чем в других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где платят от 80 до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 этом пишет ТАСС.

Самые крупные суммы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Ниже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родителям предлагают выбор: сертификат на 7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по 30 тысяч в течение 10 месяцев, либо п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ех лет.

Высокий маткапитал установлен также в Ямало-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в 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 почти 400 тысяч.

Более 320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чивают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по 300 тысяч — в Республике Саха (Якутия) и Республике Коми.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выплата 238,8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 224,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200 тысяч; в Республике Хакасия — 216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жителей малых сел).

Самый низкий маткапитал предусмотрен в Республике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 Алания — всег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в ряде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ыплаты за третьего ребенка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 ним относятся Астраха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вастополь, 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Пермский край, Удмурт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Республика Башкортостан, Курга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Тыва. В Челяб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плата (почти 14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ожена тольк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семьи не превышает двукратный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На фон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картины 250 тысяч рублей — это конкурентный и ощутимый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8면에 계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한인들에게 전하는 설맞이 인사 존경하는 사할린한인 여러분!

음력 설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명절은 곧 다가올 봄을 전하며, 만물이 새로이 돌아오는 때이고, 많은 계획과 선행을 베푸는 시기입니다. 사할린주를 사할린한인들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의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다양한 경제 및 행정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며, 사회적 분야의 발전과 사할린의 다민족 문화에 이주 말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계시고,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할린한인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사할린을 건설하며, 힘겨운 순간에도 서로서로를 붙들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향토와 위대한 러시아에 대한 사랑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친애하는 사할린한인 여러분! 음력 설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길 바라며, 활력과 강건함과 긍정적인 마음과 만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음력설 행사 펼쳐져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월 14일 사할린의 주요 한인 단체가 음력설맞이 행사를 펼쳤다.

이날 아침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 건물에 모인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프로그램과 준비된 선물이 마련됐다. 특히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학생들이 찾아와 어르신들께 한국어로 시낭송을 비롯한 축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명절 밥상 차리는데도 도왔다고, 이번 모임을 계획한 박 웨니아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부회장이 전했다.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필자는 이날 세 가지 행사를 찾아 새해 인사를 나눴다. 오후 3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사할린 한인 1세 어르신, 주 및 시 행정부 관계자, 주 및 시 두마 의원들, 민족단체, 지역 한인회 대표 등을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 초대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명절 프로그램은 공식 인사말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에 제1부지사 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블라디슬라브 예피파노브는 “설날은 가정적인 명절이다. 한인 가족, 사할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가족들의 명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적극적으로 활약한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에 선물도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은 관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세배로 큰절을 올렸다.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가야금 연주와 무용 공연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했다.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기 팀, 《아리랑》 무용단과 《희망》 무용단의 무대도



명절 기분을 안겨 주며 박수갈채 속에서 이어졌다.

오후 5시에는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 행사를 찾았다. 사할린한인연합회 고영순 회장과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이 따뜻한 축하인사를 했으며, 국 소장은 이곳에서도 세배를 올렸다. 행사 진행은 사할린한인연합회 청년부 담당 김 세르게이가 맡았다. 공간이 부족해 별도의 공연은 없었고, 참석자 대다수인 한인 2세들



은 춤추며 즐겁게 밤늦게까지 놀았다고 전해졌다.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는 오후 6시 행사에 초대했다. 2세와 3세가 어우러지는 자리로, 특히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여 분위기가 좋았다. 주최 측은 이날 진행 프로그램에 많은 공을 들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두마, 사할린 민족회 등에서 축하와 감사장 수여식이 이어졌고,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북 및 무용 공연, 초대 예술단체들의 무대, 《오스로브》무술센터 소속 태권도 선수들의 시범, 다양한 게임과 오락, 경품 추첨 등이 더해져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그리고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작사·작곡한 단체 노래가 이번에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경품 추첨에서 가장 좋은 경품인 대형 텔레비전을 따낸 순간도 인상적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국장현 소장은 이 행사에서도 설 축하하며 큰 절을 올렸다.

음력설 행사는 이미 코르사코프(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 소속 대표부), 네웰스크(사할린한인연합회 지부), 위스토크(사할린한인연합회 지부)에서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설날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한 사할린 한인 단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책무를 끝까지 완수할 것을 호소한다'

2026년 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제 432회 국회 제 70차 본회의)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58인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불합리한 영주귀국 대상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동포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80년간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한(恨)을 품고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의 절구에 비록 늦었지만 국회가 응답했음에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동반가족’이라는 좁은 틀 때문에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가 귀환의 권리를 박탈했던 독소조항을 넘어,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국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으며, 인권과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것이 80년의 한을 푸는 종착점일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의 '마지막'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역사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사할린동포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는 시혜가 아닌 역사적 책무의 완수이다. 따라서 영주귀국 동포들의 정착지원 또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영주귀국 대상은 2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했지만, 국가의 지원은 여전히 고령층을 위한 ‘돌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언어장벽·취업·자녀교육·법적 지위가 한꺼번에 얽힌 2세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를 연결하는 모든 입증책임을 동포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대한적십자회와 재외동포청이 국적판정신청과 법률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국 전부터 상담을 하고, 국적취득에 있어 폭넓은 증거채택 등 입증 책임을 국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한편,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기존의 영주귀국 동포들에 대한 돌봄도 자녀세대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즉, 기존 영주귀국 동포들의 고령화와 자녀세대의 권리에 기반한 정착에 대한 투 트랙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사할린동포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94년에 중국과 사할린 등에 잔류한 일본인들의 영주귀국 법을 제정하면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를 만들어 정착지원을 하였다. 입국 후 합숙형태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언어, 직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지역센터에서 지속적인 언어교육, 직업 관련상담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러한 정착지원이 없다. 가해국보다 못한 지원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발의되었던 사할린동포법에는 지원위원회 또는 재단의 형태로 사할린동포 관련 기관 설립이 포함되었음을 상기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법정 의무화이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영주귀국사업의 인원을 점차 줄여왔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는 필수적이다. 예산이라는 숫자 뒤에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라는 뒤늦은 국가의 책무 이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가려진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법 개정으로 몸은 돌아올 수 있을지언정,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는 여전히 사할린 땅에 묶여 있다. 사할린 한인의 학살사건을 재판한 소련군 재판문서들이 비밀해제되어 사할린 향토박물관과 사할린 한인협회에 제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수집과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사할린 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사할린주 정부의 허락을 받아 미즈호마를 학살사건의 유해발굴을 시도한 바 있다. 언제까지 민간에서의 활동을 바라만 볼 것인가? 학살사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자료협조, 그리고 중단된 유해봉환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러시아 직항노선 재개는 비단 재러동포들과 국내 체류 러시아 동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러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러시아영공을 비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도 만회하는 계기가 된다.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 땅에서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안착하고, 묻혀있던 진실이 햇빛을 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아픈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간절히, 그리고 단호히 호소한다.

2026년 2월 13일 KIN(지구총동포연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оздравлени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Лимаренко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Этот праздник возвещает скорый приход весны. Наступает время обновления, масштабных планов и добрых дел.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евоз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без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трудятся в разных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вносят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ую островную культуру, помогают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ьям. Мы вместе обустроиваем острова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поддерживаем друг друга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Нас,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ъединяет уважение к семейным ценностям, любовь к малой родине и Великой России.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усть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инесет вам счаст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Желаю бодрости,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оптимизма и успехов в делах!

В.И.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Соллаль –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и любимых праздников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семьями и гости множе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на острове. Торжество по традиции прове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ление с праздником перед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 Это праздник для семей,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русских и всех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2026 год наш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ъявил Годом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И та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ведут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емонстрирует, как это единство нужно выстраивать. Много десятилетий они от поколения к поколению передают традиции, бережно хранят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ю, полную как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так и побед, — отметил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он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Так, м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удостоился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тхэквондо Павел Ри. Многие члены диаспоры внося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достижение целей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поддержку бойцов и их семей. Регулярно они отправляют грузы на передовую – технику, лекарства, продовольствие. Один из самых желанных гостинцев – сахалинская кимч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ли рецепт, чтобы закуска доходила к защитникам в лучшем виде.

За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губернатора наград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им Сун Не и чле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Хан Ден Дя.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поблагодарила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 поддержку в деле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 В отличие от европейского,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означает приближение весны и оживление природы. В Корее праздник ассоциируется не со снегом, а с первыми листочками на деревьях. Соллаль имеет много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ритуалов – почитание предков. Мы приходим к дом к родителям, к старшему поколению с поклонами. После этого собираемся в кругу друзей и всегда желаем удачи, счастья и здоровья, — рассказала Пак Сун О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знакомили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с традициями и искусством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одарком для зрителей стал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 тонченные танцы, игра на барабанах, лиричные песни.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ет около 2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обще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цель которых –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еревод обращ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ветствуя принятие поправок к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зываем до конца выполн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12 февраля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432-я сессия, 70-е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Закон о частичном из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был принят единогласно 158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ми депутатами. Благодаря дополнениям, устранившим необоснованные критерии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вызвали спор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делала еще один шаг вперед на пути к принятию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скренне приветствуем то, чт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усть и с опозданием, откликнулось на отчаянные призыв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оследние 80 лет жили с тоской и обидой (хан)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Принятие данн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ткрыло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уть к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преодолев пагуб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лишало супругов и детей умер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ава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из-за узк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понят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члены семьи». Это прогресс, который нельзя недооценивать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историческ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днако э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конечным пунктом в разрешении 80-летней обиды. Это не «финал» исторической миссии, которую должна нест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 лишь один из процесс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усть и с опозданием. Необходимо и впредь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двигать политику по возмещению ущерба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че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первых, возмещение ущерба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 это не благодеяние, а выпол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олг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этому поддержка в вопросах пере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всегда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в Корею, должна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е с целью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м преференций, а с позиц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х прав и гарантий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 лиц, возвращающихся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на родину, быстро меняется в сторону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по-прежнему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уходом» за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в вопросах адаптации корейцев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е сталкиваются со сложност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языковым барьеро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ем детей и правовым статусом, отсутствует.

Все бремя доказыва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и связи родителей в регистре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й ложится на сам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Хотя Корейский Красный Крест и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юрид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активнее вмешиваться в процесс доказывания: провод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еще до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обеспечивать четкое установление бремени доказывания, включая обширный сбор доказательств, при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политику поддержки старе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репатрированных в Корею, а также учитывать потребности их детей.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необходима двухсторонняя политик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стареющего на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репатрированных в Корею, и обеспечение соблюдения прав их детей. Эта политика должна быть конкретизирована с учето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 каждом этапе жизни.

Во-в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обеспечивающую стабильное выполнени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В Японии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в 1994 году Закона о постоя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итае и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и созданы Центры комплексной поддержк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центры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в адаптации.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они проходят языковую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в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а благодаря постоянной языковой подготовк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ю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 рег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ах была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помогающая им интегрироваться в местное со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сих пор отсутствует подобная поддержка в адаптации. Мы должны признать, что наша поддержка уступает поддержке государства-агрессора.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предложенный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ключал создание учреждения, связанного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в форме Комитета поддержки или Фонда.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ести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в порядок,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этом. Здесь нельзя упускать один момент: закрепление бюджета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я нынешнюю реальность постепенного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на родину под предлогом нехватки бюджета.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то за цифрами в бюджете стоит выполн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своего долга — пусть и запоздалое — по возмещению ущерба каждому отдельном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у.

В-третьих, необходимо смотреть в лицо скрытой истории. Благодаря поправкам к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физически можно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но история, истина которой не установлена, все еще остается связанной с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й. Военные трибуналы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рассматривавшие дела о резне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секречены и переданы в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днако сбор материалов 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ним не проводятся.

В 2025 год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зидент Пак Сун Ок) с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ыталась провести раскопки останков жертв резни в поселке Мидзухо. Доколе мы будем только просто наблюдать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ложить России провести совмест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на месте событий резни,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работе с материалами, возобновить приостановл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возвращения останков,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лучшен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И ещ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Россией — это проблема не тольк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Это не только поможет улучшить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о и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стью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временны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тери, вызванные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летать через российское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Мы искренне и решительно призываем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занять ответственную позицию, позволяющую полностью исцелить эту болезненную рану, — до того дня,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могут прочно обосноваться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не как чужаки, а как полноправные граждане, и когда погребенная правда выйдет на свет.

13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КИН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е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еул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отправки БПЛА в КНД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т имен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выражает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отправ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БПЛА) при предыдущ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н Сок Ёл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18 февраля на брифинге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Чон Дон Ён.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принял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вос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Чон Дон Ё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инциденты с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граждански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т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же обсуждало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овторения подобных нежелательных инцидентов. Это, в частности, ужесточение наказания за незаконную отправку БП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ётов, штраф за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составляющи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5 млн вон (3.500 долларов), будет увеличен до 10 млн вон.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может быть назначено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сроком до одного года, - отметил Чон Дон Ён. Кроме того, может бы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а бесполётная зона, котор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2018 года, запрещает эксплуатацию люб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в пределах 15 км от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в 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ах и в пределах 10 км в западных районах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Эта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любых непреднамеренных вое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и укрепление доверия между вооружёнными силами Юга и Севера,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офессор Пэк Пом Сок возглавил орган ООН

Профессор Пэк Пом Сок с юрид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хи возглавил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ООН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выборы состоялись 16 февраля в Женеве, на 34-й сесс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офессор Пэк Пом Сок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с 2020 года.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комитет, состоящий из 18 экспертов, проводит исследов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РК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усилиях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мпетентных эксперт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аботать в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ах ООН,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В «Корейском доме» в Милан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Соллаль

17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доме» в Милане, открытом в рамках XXV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рошло мероприятие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 Корей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и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радициями праздника Соллаль, народными играми, посмотрели выступления артистов, исполнивших танцы на музыку К-POP. В заключение состоялась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Все гости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ттоккук -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чный суп с рисовыми клёцками.

Президент РК посмотрел фильм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17 февраля, в первый день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и первая леди Ким Хе Гён посмотрели историческую драму «Королевский страж».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написал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Сил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Я пришёл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 Произведение режиссёра Чан Хан Чжун переносит зрителей в XV век. После дворцового переворота Кеючжоннан,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юный король Ли Хон Ви, будущий император Танчжон, был отправлен в ссылку. Он оказывается в глухой деревне Кванчхонголь под надзором старосты Ом Хын До. Между свергнутым правителем и простым деревенским жителем постепенно возникает доверие, ставшее основой трогательной истории. С момента премьеры фильм собрал более 3 млн зрителей.

Более 250 тысяч корейских артефактов находятся за рубежом

Более 250 тысяч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артефактов находятся за рубежом, куда они были вывезены во время войн и других кризисных периодов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и Фонда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за рубежом,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начало этого года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находило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56.190 предме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Данный вывод сделан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фондов 801 музея в 29 странах. Подтверждено,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в Японии находятся 43,2%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реликвий за рубежом - 110.611 предметов. Далее следуют США - 68 тысяч, Германия - более 16 тысяч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 около 15 тысяч. Большинство артефактов вывезено из Кореи незаконно. До сих пор на родину удалось вернуть из-за рубежа 2.855 предме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RKI

В Пхеньяне открыли жилой квартал в честь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сти КНДР и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продолжаю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особую заботу о те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правлены в Россию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хеньяне заверш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жилого района "Сэбёль-кори", или "Улицы Новых звезд",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го для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ших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рошла при участии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и стала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показательных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ев накануне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намеченного на конец февраля.

"Сила Кореи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Улицы Новых звезд" состоялась накануне в престижной части Хвасонского района Пхеньян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им Чен Ын с дочерью Чжу Э,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анее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жене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командов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учащиеся революцион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а также жители столицы.

Новый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оенных, погибших на СВО.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район расположен в "лучшем месте" столицы, что традиционн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знак особ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изнания.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перерезал ленточку и передал семьям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льзование квартирами от имен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Этот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воплощает силу Кореи и символизирует велич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заявил Ким, выступая с речью, подчеркнув особ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наполн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озгд, вручая документы, поклонился родственникам погибших,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ресса особо выделала как символ уважения к героям.

Личные встречи с родителями и близкими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л квартир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включая вдову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и родителей, потерявших на войне двух сыновей-близнецов. "Это образцы патриотов, которые без всякой корысти, лишь исполняя приказ Родины, без колебания отдали даже свои драгоценные жизни", - охарактеризо-

вал павших бойцов Ким.

По слов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государство обеспечит родственникам погибши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 всесторонн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жить "гордой и достойной жизнью без малейших неудобств".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власти также намерены рассматривать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как важнейш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задачу.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детям военных. Ким Чен Ын поощрил одного из учащихся Мангендэского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училища - аналога российских суворовских военных училищ, элитного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где обучаются дети погибших за государство граждан и готовятся будущие партийные кадры. Судя по сообщениям СМИ КНДР, дети военных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ения в подо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последующего карьерного продвижения.

Акция с учетом съезда партии

Открытие квартала совпало с подготовкой IX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пройти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По оценке зарубежных экспертов, власти стремятся представить участие в конфликте как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достижений периода правл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В этой связи в Сеуле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я съезда намеренно отложили, чтобы синхронизировать ввод "Улицы Новых звезд" в строй со съездом, такую важ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придаст всей кампании заботы об отправившихся на помощь Росс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членах их семей.

Отмети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Пхеньяне также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рупного мемориала в честь павших герое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и всего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участвовавшего в Курской опер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мплекса также стартовало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Ким Чен Ына и его дочери Чжу Э.

В целом же открытие нынешнего жилого массива вписывается в более круп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о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50 тысяч квартир в Пхеньяне. Эта программа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на VIII съезде партии в 2021 году 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зведение по 10 тысяч квартир ежегодно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с целью решения жилищной проблемы столицы. С заверше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квартала власти фактически приближаются к выполнению одного из ключев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как важ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достижен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Душа России» теперь и в Сеуле

Сеул, 16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KBS представит программу «Душа России» 28 февраля в Сеульском центре искусств. В программ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хманинова начала XX века, размышляющие о смертности, и Шостаковича середины XX века, размышляющие об исторической травме.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т Элияху Инбал, 90-летний израильский дирижер, чья карьера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шести десятилетий 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работу с крупнейшими европейскими оркестрами, такими как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Франкфуртского радио. Программа открывается «Островом мертвых» Рахманинова — симфонической поэмой, вдохновленной символическим изображением одинокой лодки, приближающейся к скалистому острову, на картине швейцар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Арнольда Боклина. Написанная в 1908 году мрачная музыка передает чувство одиночества и ощущение границы между жизнью и смертью, демонстрируя рефлексивный характер русской романтической музыки того периода.

Когда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меняет правила Единая виза дл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ак победа принципа равенства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о разъяснительную встречу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визовых статусов H-2 (방문취업) и F-4 (재외동포). Формально — изменение миграцио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 существу —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завершившее двадцатилетний этап правовой конструкци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внутри самой категории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существовало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закреплённое неравенство.

С 2007 го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ействовала двухуровневая модель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татус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за рубежа. Виза F-4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ась как стату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то есть более устойчивый,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и интегра-

цию. Виза H-2 была оформлена как режим «посещения с целью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исторически встроена в систе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ременной рабочей миграции. Формально обе визы предназначались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Однако механизм их получения 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ринципи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Зарубежные корейцы с гражданством России и ряда други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получали статус F-4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орейскому этносу. Для граждан других стран СНГ, а также для китай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йствова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требование — налич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диплома оформлялась H-2.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в память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Митинг,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памяти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состоялся 15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 памятника «Скорбящая», на котором запечатлены имена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авших в различных горячих точках, собр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командование 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68-го гвардейско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общн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Ровно 37 лет назад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покинули территорию Афганистана. С 2010 года 15 феврал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памяти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это еще и День воинской добле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сполнявших воинский и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в ход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операц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Недавно мы отметили две важнейшие даты: 8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 те годы казалось, что ужасы войны больше никогда не повторятся. Но история распорядилась иначе. Воины Росс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немал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света. Они с честью исполняли служебный долг,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отстаивали интересы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дины. Время идет, но ветераны «горячих точек» хранят верность боевому братству, остаются настоящими патриотами. Сегодня часть из них мужественно сражается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ругие передают свой опыт новым бойцам, помогают их семьям, ведут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 молодежью. Спасибо вам, ветераны, за службу России, за доблестное выполнение воинского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долг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обравшиеся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чтили память тех, кто не вернулся с поля боя,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и венки к памятнику.

Майор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и ПВО Иван Савельев сейчас в отставке. В Афганистане провел почти полтора года, бомбил моджахедов, выполнял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полеты вплоть до границы с Пакистаном.

Хотел бы напомнить слова адмирала Макарова: «Помни войну. Только тот, кто к ней готов, может в ней победить». Страну защищать надо. Она состоит из наших детей, наших близких, — поделился Иван Савелье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 Игорь Горожанов напомнил, что многие ветераны «горячих точек» в 2022 году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бойцов, которым предстояло отправиться в зон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Это ежедневный труд на полигонах, обучение стрельбе, штурмовым действиям, тактике.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беречь наших ребят, помочь им победить, — рассказал Игорь Горожан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Юрий Борисов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операции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Добровольцем отправился в зону СВО.

Я служил в развед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порож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ечно, очень пригодился прежний боевой опыт. Были уже определенные навыки, знание, что такое война, понимание, как прикры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как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И сегодня я хочу сказать тем, кто продолжает службу в зоне СВО: работайте, братья! Мы ждем вас домой с победой, — сказал Юрий Борисов.

Афганская война — военный конфликт 1979-1989 год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Афганистан. В столкновениях участвовал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ча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с другой — вооружен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моджахедов, которых поддерживали страны НАТО.

Наука представи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рогнозы вылов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нозируемые объемы добычи и стратегию промысла в красную путину 2026 года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оптимистичным оценкам,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выловят 62 тысячи тонн лосося.

По объемам добычи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ежегодно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ша задача —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об открытии промысла и ег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максимально оперативно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интересы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Они сегодня занимаются переоформлением договоров пользования рыболовными участками, что требует больших финансовых вложений. Вместе с тем необходимо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рекомендациям науки по ограничению промысла,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популяцию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прошел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овет.

Основной объем добычи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ят горбуша — по разным прогнозам, от 17 тыс. до 42 тыс. тонн — и кета — 17 тыс. тонн. Около 3 тыс. тонн придется на нерку, кижуча и симу. Даже пессимистичный сценарий красной путины почти вдвое лучше прошлогоднего.

Окончательные прогнозы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после фин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апреле. Главной интригой, которая разыгрывается на этой путине, будет как раз подход горбуши к Восточному Сахалину,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графии Кирилл Колончин.

В 2025 году объемы вылова снизились не толь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о и по всему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На результатах красной путины сказались аномально жаркое лето. Из-за высокой температуры воды в реках сложились не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нереста.

Ожидае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будут в пределах норм последних лет, 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могут улучшить результаты. Но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промысл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выходит заполнение нерестилищ. Предлагаем бизнесу открывать добычу только вблизи тех рек, где нерестилища достаточно заполнены. Это обеспечит задел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вперед,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Начать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планируется 15 июля, кеты — 16 августа. Наука рекомендовала запретить в этом году добычу на юго-западе Сахалина и част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южнее пролива Анучина до протоки залива Пильтун, включая Ныйский залив), а также в заливе Терпения (от мыса Соймонова до мыса Терпения) и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Будет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о время начала промысла на юго-востоке Сахалина (от мыса Тунайча до мыса Анива), в заливе Анива (от мыса Крильон до мыса Анива) и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Добыча стартует только при оптимальном заполнении нерестилищ.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н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омним, ч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уточная норма вылова горбуши увеличилась с трех до пяти хвостов. А перечень мест, где можно законно поймать лосось, расширился с 55 до 78.

Двоих добровольцев СВО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оскве прошло награждение добровольцев,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едал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за поддержку бойцов и их семей вручили Юрию Евичу и Юрию Синеву.

Оба награжденных — москвичи, но с островным регионом их связывает фронтовое братство: они делятся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навыками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Юрий Евич — автор методики по повышению выживаемости в бою и создатель проекта «Технология выживания». Первыми его обучение прош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азаки в зоне СВО, а затем опыт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среди других земляков. Благодаря тренировкам в прифронтовой зоне бойцы получили бесценные знания по спасению жизней в критических ситуациях.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лучить такое признание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наша работа не напрасна, что люди ценят то, что мы делаем для наших бойцов. Медаль для меня — это не просто награда, а символ единства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борьбе за правое дело, — поделился Юрий Евич.

Юрий Синев — инструктор «Школы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В мирной жизни он тренировал боксеров в Москве, а с началом СВО ушел защищать Донбасс. На фронте был штурмовиком, разведчиком и санинструктором. Доброволец рассказал о подвиге погибшего товарища —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дика Олега Брянцаева из отряда «Барс».

Он вытаскивал ребят из боя. Последние его слова по рации: «Парни, сделал все, что смог». Мы помним его и благодарны за спасенные жизни, — вспоминает Юрий Синев.

Награды добровольцам СВО перед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ь stolни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лександр Ремезов. Он поблагодарил героев за неоценимую помощь и заверил, что область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ивать фрон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Юрий Евич и Юрий Синев отправятся на Сахалин, чтобы обучить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методикам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и навыкам выживания.

С начала СВ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а системная помощ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который был инициирован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на передовую отправлено более 920

тонн адресных грузов. А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могает ветеранам по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в мирной жизни.

Участники XV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оборются за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XV фестиваля любительско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грядущую субботу, 21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е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нут открыт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наваги. Регистрацию уже прошли более 200 команд. В их числе гост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 из Москвы, Адыгеи, Калмыкии, а также из го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йдет уже пятнадцат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Это самый крупный в России фестиваль для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который стал гордость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жегодно он собирает более 2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наваги.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ь состязаний получит главный приз —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Также дл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больш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А так как 2026-й год Президент объявил Годом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ы приглас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ахалина. Они приготовят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своих кухонь для угощения наших гостей, — рас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Козлов.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2 года.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оказывает Ассоциаци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к участию в фестивале готовы допустить 300 команд.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9:00 20 февраля на сайте <https://sakhice.ru>. Подать заявку также можно в рабочие дни с 10:00 до 18:00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722-576.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будет и на льду перед стартом. Участие бесплатное, возраст рыбаков не ограничен.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м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Подвоз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 от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Долинска до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и обратно.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помогает привлечь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тартовала в 2025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Ее цель — привлечени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рабочих поселков и городов с населением до 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рамма уже приносит перв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ервой участницей программы «Земски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а Анастасия Уразбекова —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ЗО Поронойской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Специалист обучает детей основам живописи. Ранее девушка работала в Чите, и переезд на остров стал для нее новым жизненным этапом.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она получила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что помогло ей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и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и работы в новом регионе.

Решения об участии в программе «Земски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и переезде из Читы на Сахалин дали мне нелегко. Спустя полгода я мог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не жалею! Трудности были, но главное — это мои ученики, их искренний интерес и стремление творить. Также благодарю коллег за теплый прием, — поделилась Анастасия.

Успех инициативы послужил стимулом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программы. 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квоту на участие увеличили до 10 человек. Это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еще больш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укрепить кадровый потенциал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региона.

Ране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тмечал, что специалист, который переедет на работу в село, в малый город,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онбассе и в Новороссии эта сумма будет вдвое выш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в 2026-м и 2027 год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 размере 2,5 млрд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Участникам, прибывающим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лага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компенсационная выплата в размере 2 млн рублей. Программа «Земски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скусства и творче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년 임기를 마치는 정승훈 교육원장: "정 많은 사할린 동포들, 헤어지려니 만감교차"

(2면의 계속)

홈스크 시에는 여전히 많은 동포들이 살고 계신데, 강사가 없어서 한글학교 운영이 중단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소규모 한글학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 원장님 임기 동안 사할린한국교육원이 한국의 여러 기관들과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국립충남대학교(2023.8.3), 대구계명대학교(2025.3.18.), 국립남도국악원(2025.6.27.),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2025.12.30)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립충남대학교 대학원에 현지 러시아인(흐레보르도바) 학생 한명이 AI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하면 계속 박사과정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계명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아직 없습니다. 국립 남도국악원과는 앞으로도 계속 사할린 동포 대상 국악 강습을 이어가자고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영주 귀국하신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편을 비롯한 여건이 개선되면, 안산 교육지원청과 교육과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요. 문화적 차이 혹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 낯선 환경이었지만 저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사무실 바로 앞에 한국관 식당이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되었으며, 출장소장님과 서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느낀 점이 적지 않습디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 현지에서 다양한 기관, 단체 및 인사들과 협력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협력하기 좋았던 파트너가 있다면 누구이며,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와 사할린한인협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인사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와 교육원은 거의

입술과 이빨의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의 협력이 없었다면 교육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양학부 학장을 맡고 계신 임 엘비라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사할린 동포 사회와의 교류에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고, 그 점이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여당과 야당으로 대립하여 다투는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2025년 새 대통령의 당선 이후 통합의 정치를 펼치고 계시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사회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임기를 마치시고 귀국하시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신 후,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으실 텐데요. 다음 근무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저는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에서 장학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할린 동포들과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문화력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한국은 2025년과 2026년 연속 세계 6위의 강대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입니다. 이런 모국의 변화에 발맞춰, 사할린 한인 동포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개인과 동포 사회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문화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 한국어 수강자 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에 더욱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을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원장님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해외 동포 청년, 정착 지원 본격화... 첫 장학생 선정

재외동포청, '26년도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의 '학업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2.13(금)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에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전)주기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학업지원' 대상자는 국내 대학(원)과정 또는 한국어 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나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국내외 동포 청년들이 다수 지원했으며, 약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원자의 역량, 성장 가능성, 국내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 첫해이자 비교적 짧은 접수기간이었음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동포 청년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동포 청년 인재가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활력을 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학업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귀환을 희망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역시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

※ 대상자 발표는 재외동포청 공식 포털인 코리아넷(www.korean.net)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공지
(재외동포청 제공)

Когда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меняет правил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нутри единой 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существовала правовая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В одних случаях этниче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ризнавалось достаточным основанием для статус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В других к нему добавлялся социальный критерий, не связанный с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Статус «зарубежны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재외동포)» фактически зависел от сочетания двух факторов — паспорта и уровня образования.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й элемент заключался именно в этом: равная по происхождению группа получала различный правовой режи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казывалась в статусе, по своей логике ближе к модели временно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тогда как другая часть в более устойчивом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H-2 была ограничена по срокам и жёстко связана с трудовой занятостью. Она предполагала режим услов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родление которого зависело от соблюдения целого ряда требований. F-4 обеспечивала больш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ланирования жизни и иной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Разница между этими режимами была не терминологической, а структурной. Она определяла степень правовой защищённости и горизонт будущего.

Объединение H-2 и F-4 означает демонтаж самой модели «двойного статуса». Прекращается выдача новых H-2, действующие обладател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хода на F-4. Расширяется перечень разрешённых видов занятости, вводятся стимулирующие меры, связанные с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участием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нако центральное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ит не в деталях. Изменён принцип: стату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больше не стави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барьера. Это решение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достижение не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оно устраняет конкретную норму, но и потому, что оно завершает этап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внутри одной этнической категории существовала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ирован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Ва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подобные изменения не происходят спонтанно.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пересмотр устойчивых правовых конструкций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ым тогда, когда проблема перестаёт быть частным переживанием 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публич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ную,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ую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 оформленную позиц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КРК) сыграла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ключевую роль.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амого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ак единый субъект диалог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Вопрос различий между H-2 и F-4 не возник в повестке внезапно. Он формировался через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бращ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и, случаи отказов в получении F-4 п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критерию, анализ правоприменительной практики. АКРК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ла этот эмпирический материал и перевела его из сферы частных историй в

сферу публичной аргументации. На форумах, круглых столах, экспертных встречах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соответствует ли существующая модель заявленному принципу равного статус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Обсуждение велось не в логике просьбы о льготах, а в логике правовой непротиворечивости 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принципа равенства.

Параллельн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артнёр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омо» (사단법인 너머), обладающая опытом социальной и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усиливала экспертн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этого диалога. «Номо» обеспечивала юридическую проработку аргументов, участвовала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суждениях, готовила анали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включению темы в повестк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сектора. Если АКРК представляла голос самой общины как носителя проблемы, то «Номо» переводила этот голос в язык процедур, нормативных механизмов и публичной политики. Именно такая коалиция общи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зволила придать проблеме системный характер. Это и есть классический механиз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сбор эмпи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е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й позиции, устойчивое присутствие темы в публичной повестке и диалог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до момента пересмотра нормы.

Но значение этого события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виз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ак только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знаё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вного статус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логика развития неизбежно ведёт к следующему вопросу —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гражданства. Визовый статус приближает к устойчивости, но не заменяет гражданско-правового признания. Для коре-сарам из стран СНГ, чья историческая траектория включает участие предков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депортацию и многопоколенную жизнь вне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тема гражданства не является абстрактной. Это вопрос завершения правовой истории: когда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признаётся не только в фор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живание, но и в форме полноцен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статуса. Объединение H-2 и F-4 — важный этап на этом пути.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достижение, закреплённое в правовой систем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это и сигнал: если принцип равенства признан в визовой сфере, он логически требует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и в сфере гражданства.

12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можно зафиксировать как дату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реформы. Однако точнее как дату, когда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способность менять даже такие сложные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как миграционное право. Не через конфронтацию, а через системную работу, аргументацию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й диалог. Именно в этом смысле объединение H-2 и F-4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обеду принципа равенства 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выходить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ы одной визовой категории.

Тен Жанна (정영순),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иглашённый профессор Инчхон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의 평균 근로임금, 1만 루블리 상승

2026년 초에 사할린주 월평균 중위권 근로임금이 8만 9,900루블리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8,900루블리가 상승했다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헤헤 루(hh.ru)'가 전했다.

분석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지역 평균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았는데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임금 수준에서 압도적 선두를 차지했다.

농업 분야 채용에 중위권 임금은 14만6천 루블리이고, 2위는 광산업 직종으로 14만3,400루블리였으며, 3위는 건설업 분야의 종사자로 11만7,400루블리에 해당했다.

몇 개 분야의 직종은 10만 루블리가 넘었다.

'생산 및 수리, 유지보수'업종이 11만3천 루블리, '자동차 산업' 업종이 11만2,800루블리, '통신정보기술'이 11만1,300루블리, '의료 및 의약품'이 10만1,300루블리, '교통, 물류, 운송'이 10만 700루블리, '노동 인력'이 10만 3,000루블리로 집계됐다.

전체 시장 중위권의 근로임금(8만9,900루블리)보다 약간 높은 직종은 '회계 및 재무관리'가 9만7,600루블리였고, '물품 조달'직은 9만900루블리였다.

모든 분야에서 근로임금이 상승한 것은 아니나 고용주들은 몇몇 분야에서 지역에 따라 전문가들의 노동을 평균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중 '관광, 호텔, 요식업' 분야의 중위권 월급이 7만3,500루블리, '학술 및 교육'분야는 7만6,800루블리, '소매업'은 7만9,700루블리로 나타났다.

일부 분야는 지난해 대비 근로임금이 크게 상승했다.

바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가운데 1년 만에 28%가 증가한 11만1,300루블리에 달했고, 또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적정임금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의료 및 의약

품' 분야는 19% 상승한 10만1,300루블리, '회계 및 재무관리' 18% 상승한 9만7,600루블리, 소매업은 14% 상승한 7만9,700루블리, 차량서비스는 13% 상승한 11만2,800루블리나 된다.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на Сахалине выросла почти на 1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начале 2026 года медианная предлагаемая зарпла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89,9 тысячи рублей, что на 8,9 тысячи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ят аналитики платформы онлайн-рекрутинга.

Эксперты определили, кому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выше среднего по региону.

Специалисты аграрного сектора стали абсолютными лидерами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 Медиана в вакансиях составляет 146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сотрудники 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в 143,4 тысячи рублей. Третью позицию занимает строительная сфера: здесь работодател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в среднем 117,4 тысячи рублей.

Планку в 10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преодоле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рвис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 113 тысяч рубле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бизнес» — 112,8 тысячи рубле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 111,3 тысячи рублей; «Медицина, фармацевтика» — 101,3 тысячи рублей; «Транспорт, логистика, перевозки» — 100,7 тысячи рублей; «Рабочий персонал» — 100,3 тысячи рублей.

Чуть выше общей рыночной медианы (89,9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ходятся также «Финансы, бухгалтерия» — 97,6 тысячи рублей и «Закупки» — 90,9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е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предложения остаются высокими. Работодатели оценивают труд специалистов ниже средней отметки по региону в следующих сферах: «Туризм, гостиницы, рестораны» — 73,5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е» — 76,8 тысячи рублей;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 79,7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екоторые отрасли показывают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зарпла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амый большой скачок зафиксирован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плюс 28% за год (до 111,3 тысячи рублей).

Также заметно выросли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Медицина, фармацевтика» — +19% (до 101,3

тысячи рублей); «Финансы, бухгалтерия» — +18% (до 97,6 тысячи рублей); «Розничная торговля» — +14% (до 79,7 тысячи рубле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бизнес» — +13% (до 112,8 тысячи рублей).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참새 1,300마리 이상 조사돼

2월 7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겨울철 전국 집참새 개체 수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 조사활동에 전국 80개 이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이번 사할린주의 참새 개체수 조사에 6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참새는 총 1,375마리로 집계됐다. 조류를 발견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보고서에는 반드시 새의 사진(여러 마리일 경우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과 발견된 장소의 좌표를 기록했다.

이전 참새 개체수 조사는 2025년8월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사할린 지역에 단지 5명의 자원봉사자만이 조사에 참가한 이유로 지난해 여름 참새의 수는 58마리라는 저조한 수치를 보고했다.

Более 1300 воробьев насчит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 врем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переписи

С 7 по 15 февраля в России проходила зимня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перепись воробьев.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волонтеры из более чем 8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Это следует из данных на сайт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этот раз перепись птиц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ли 67 человек. Они суммарно насчитали 1 375 воробьев. Данные по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Каждая такая встреча с пернатыми была документально зафиксирована. Отчет обязательно включал: фото птицы или птиц в разных ракурсах (если особой несколько) и координаты места встречи.

Предыдущая перепись прошла летом в августе 2025 года. Тогда на островах подсчетом воробьев занимались всего пять волонтеров.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тоги наблюдений оказались скромнее — 58 особей.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Е-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p> <p>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